

투데이 칼럼

재검토준비단, 마무리 잘해야 한다

고 준위방패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단장은 재호, 이하 '준비단')은 오는 11월 12일 최종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건식저장시설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지역단위 재공론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주민 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야만 한다.

그동안 회의 과정을 돌아보면 원전 반경 20~30km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측과 5km 이내 원전소재지로 하자는 측으로 양분되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비단이 해당 절차에 들어가면 의견수렴 범위 결정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정부의 몫이 된다. 정부가 결정하면 공론화 취지는 불가피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재공론화 시작부터 다시 논쟁을 벌여야할 형국이다.

이렇듯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1차적으로 중앙부처의 책임이 크다. 준비단과 공론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화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부족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준비단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준비단도 공론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다.

불안정한 준비단을 만들어 놓고 성공적인 재공론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피해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비소재지의 준비단 참여 요청에도 불비반의 정상적 구성을 저해하였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아 표절처리도, 결과에 대한 승복도 의미를 상실하였다.

둘째, 공론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공론화를 변경되거나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어사전에 공론화(公論化)는 '숨김없이 드러내어 여럿이 의논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앙부처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상호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된다.

또한 여기에는 반드시 갈등 조정이라는 숙성의 기간을 필요로 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단위 공론화를 손쉽게 처리하려는 단일함과 조급함이 엿보인다.

셋째, 지역주민의 성숙한 의식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의식도 과거와 달리 많이 향상되었다.

각종 매체의 발달로 정보 획득도 빨라졌다. 더 이상 농락의, 폄수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치유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이다. 준비단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해당 전까지 준비단의 고유의 업무영역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5km 이내 원전소재지 주장으로 원전과 핵폐기물을 한 지역의 문제로 한정하거나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론화에 임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다.

이해지역 주민이 제외되어 잘못되었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폭넓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할 때이다.

남은 기간 준비단의 진정성 있는 회의 진행으로 새해에는 지역단위 재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사설

예산 7조원 시대 반드시 열어야 한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과 관련해 지지자와 브레인들이 생각이 많아야겠다.도민들은 그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일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전북도는 이번에도 도민의 열원을 받들어 7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수 년째 7조원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북도의 능력부족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지적이 불쾌할지라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예산이 증액된 사실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호들갑을 떨었다. 여기 또다시 지적하기나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증액은 결코 증액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전북도는 긴장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저번에 요청한 액수는 7조 6661억 원인데 반해 정부 예산안은 6조5139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전북도는 무슨 큰 성과라도 낸 것처럼 들리는 기분을 감추지 않았었다.부처 예산이 2159억 원이 늘은 것과 새만금 쪽 예산이 전년보다 7.2% 오른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국회 단계에서 역대 최고액이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의 정서는 지금도 결이 다르다. 수년째 소폭 증액 예산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음에 도민들은 불만이 컸던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도 7조원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6조9천억 원이 되면 6조9천5백억 원이 되면 도민들은 섭섭할 터이다.전북도는 7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발전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활발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재무를 평가는 역척스러움이 아직은 2% 부족해 보인다.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척스러움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그게 없는 것 같다. 너무 앞만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전북도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7조 원 예산 확보가 미흡했다면 더 뛰어야 한다.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도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거니와 우리 지역은 발전 속도가 너무 더디다. 나후 지역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 전북이 대명사처럼 불려지고 있으니 답답한 세월이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의 명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지금은 뛰어야 할 때이다.

탄소산업 힘찬 추진 있어야

도내 탄소산업에 대하여 생각이 많다. 원활한 추진을 보여주지 않는 까닭이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탄소산업의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은 더 힘내야 한다.

탄소 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끌 어줘야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희망 사항에 그친다면 곤란하다. 국책 사업이라면 지역을 일으켜주는 시너지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답답한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심수십년째 그러니 유감천만이다. 그래서 여기 말 할 게 있다. 예산 증액이 된다해도 뭘꿈 거리는 예산 증액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물가 인상을 생각할 때 그것은 예산과 같은 배분이야 마친가까지다. 그런 까닭에 도내 국책사업들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탄소산업클러스터의 현주소를 확실히 짚어줘야겠다.탄소사업이 힘차게 추진돼야 지역에 발전이 있다. 탄소산업도 얻은

히 국책사업인데 활발하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우리 지역 탄소산업의 규모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전북도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한 탓이다. 국책사업이면 계속 힘차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게 보인다. 그런 세월이 오래이기 전에 전북의 탄소사업이 지역 경제에 기대했던 만큼의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백년 먹거리 사업이 될 거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은 각 갈이 멀다. 탄소 클러스터 국책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이런 지적에 통증을 느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므로 하는 말이지만 각 사업들의 당위성 같은 것에 공감대를 얻는 것 보다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전북도는 본래 목표한대로 탄소산업의 힘찬 추진을 계속 보여야겠다.

독자제언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문제 특히 인성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쩌면 최근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때문에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이끌고 가야 할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학교 안, 밖에서의 청소년 탈선행위가 늘고 있어 청소년들 대상으로 올바른 교육과 바른 품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시하다보니 교육의 인권은 멀어지고 혼용해야 할 부분들이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올바른 훈육을 시켜야 함에도 어려움을 안고 있다. 올바르게 키워야 할 청소년들의 정체를 대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잘 하지 못하는 등 경쟁사회에

서 살다보니 옆을 볼 시간이 없고 오직 앞만 보고 가야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친구들과간 이해나 배려심마저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가정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가정이 깨지는 사례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님들 간의 불화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아이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옆집 아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서로 봐주고 지도해주는 이런 사회풍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내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가정에서의 1차 교육과 학교에서의 2차 교육 그리고 사회에서의 3차 교육이 필요하다. 내 자식의 행동을 먼저 살펴보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수정을 요하며, 작은 일이라도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고려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평용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 뻔뻔하고 대담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전면 재개에 대해 콜리일리 호슈루 유엔 주재 이란대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뻔뻔하고 대담하게(brazenly and boldly)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사진은 작년 2월 13일 유엔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호슈루 대사의 모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